

## 새로운 접근으로 창의성의 비밀을 밝히는 안내서

박 영 하\*

| 『창의성의 즐거움』, 미하이 칩센트미하이

우리는 창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창의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창의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내놓으면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창의성은 현대사회를 발전시키는 물론 우리의 삶과 문화를 풍요롭고 생산적으로 이끄는 핵심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칩센트 미하이 교수는 창의성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이끄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칩센트 미하이 교수는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창의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창의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창의적인 인간으로서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충만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칩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 책을 통하여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61명의 창의적 인물들의 인터뷰와 그들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고찰하여 발견한 것을 제시하면서 61명의 창의적 인물들처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프롤로그, 1부 창의성을 재발견, 2부 창의적 인물들의 생애, 3부 창조활동의 영역으로 총3부로 구성되어있으며 1부에서는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2부에서는 61명의 창의적 인물의 인터뷰와 체험담을 바탕으로 그들의 초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그들의 생애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3부에서는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칩센트 미하이 교수는 심리학자로서 활발한 저서활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40년 동안 시카고대학의 심리학/교육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클레어몬트 대학교의 삶의 질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긍정의 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분야를 전문으로 삶의 질과 창의성, 행복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이루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몰입의 즐거움」, 「플로우: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몰입의 기술」, 「몰입의 경영」 등 창의성과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창의성의 즐거움」은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밝히고 또한 창의적 인간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안내서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 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parkyoungha@gmail.com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창의성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우연하게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문화적인 배경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할 만한 업적들은 한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체계에 따른 배움으로서 무지를 일깨울 수 있는 지적 영역과 창의적인 새로운 업적들을 인정하고 입증해주는 현장과 개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상승작용의 결과물”이라 말하고 있다. 즉,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세 가지 요소로 영역, 현장, 개인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있다. 본 저서에서 언급하는 ‘영역’이란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 부르는 특별한 공동체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상징적인 지식을 의미하며 창의성은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문명적 발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의적 지식이 도래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갈릴레이가 고안한 천체망원경의 발명은 1609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갈릴레이는 이듬해에 그 개량형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찰하고 목성의 위성, 토성의 고리 등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우주는 은하수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천문학상의 지대한 공헌을 이루었다. 갈릴레이가 천문학적 발견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에서 발명된 망원경을 개량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문명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변형과 사고를 이루면서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즉, 창의적 사고란 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번득이며 한순간에 발현되지 않으며 시대에 존재하는 기존 지식의 영역을 통해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창의성 체계의 두 번째 요소인 ‘현장’은 창의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활동현장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문명의 창의적 산물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은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현장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레고리 멘델은 1856년부터 완두에 대한 유전실험을 하여 7년 후 ‘멘델의 법칙’을 발견하였으며, 1865년 브린의 자연과학협회 정기회의에서 「식물의 잡종에 관한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정기회의에서 ‘멘델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20세기까지 인정받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후 ‘멘델의 법칙’은 크게 각광을 받으며, 유전 및 진화의 분야에서 생물학사상 가장 큰 업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창의적 발견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사회에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창의적 발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명의 지식 영역을 통해 이루어진 창의성 아이디어와 산물은 반드시 그 시대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상호작용을 이루어야지만 창의적 인간이 만들어지고 창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창의성 체계의 세 번째 요소인 ‘개인’은 기존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변형을 만드는 행위나 사고 또는 작품을 만드는 인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이라 지칭하는 새로운 사고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창의적 발견을 위해 지식영역에서 충분하고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사고로 창의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발견한 것이 시대적 현장에서 인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창의적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창의적인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창조과정을 즐기는 능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복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이 책에 언급하고 있는 열 가지의 복합적 성향은 다음과 같다. 1) 대단한 활력을 가지면서도 조용한 휴식을 취한다. 2) 명석하기도 하지만 한편 천진난만한 구

석이 있다. 3) 장난기와 극기 또는 책임감과 무책임이 혼합된 모순된 성향을 가진다. 4) 한편으로는 상상과 공상을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뿌리박은 의식 사이를 오고간다. 5) 외향성과 내향성을 모두 가진다. 6) 매우 겸손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하다. 7) 어느 정도 전형적인 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 8) 반항적이고 개혁적이면서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향을 가진다. 9) 자신의 일에 매우 열정적이면서도 극히 객관적이다. 10) 개방적이며 감성적인 성향을 가짐으로 인해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통, 역경을 겪는다.

이처럼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시대적 문명이 가지는 지식의 영역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사회현장과 창의적인 사고와 행위를 끊임없이 이루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창의성이 이루어지고 창의적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의성의 발현과정을 살펴보면 창의성은 직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창조는 한 인간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깊은 사색과 의식적 잠복기를 거치면서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은 현존하는 지식과 현장을 통해 여과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창조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매우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시대의 현장을 통해 인정되는 창의성은 시대적 문명과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저서에서는 창조의 과정 중 의식적 잠복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함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몰입에 대한 행복감을 가진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타인이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발견을 위한 어떠한 문제에 몰입을 이루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과 희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몰입하고 행복감을 가지고 만족된 삶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인물의 삶에 대해 저서의 중반부에서는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동시대에 살아온 창의적인 인물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창의적인 인물의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삶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의적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초년기의 특징은 그들은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기보다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뛰어난 천재성이라기보다는 강한 호기심 또는 흥미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남보다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이러한 강한 호기심은 문제에 대한 몰입을 이끌고 이러한 호기심과 흥미에 대해 주변이 인정하고 믿음을 줄 때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에 가진 관심과 경험들은 현재로 연결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창의적 인물들의 장년기의 특성은 초년기에 가진 호기심과 재능은 집중력과 추진력이 결합되면서 창조적 과정을 가지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창조적인 인물들의 가장 뚜렷한 성향 중의 하나는 자신의 연구가 자신의 관심사에서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구는 역사와 사회적 문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일과 창의적 발견이 세계와 인류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려와 걱정을 가지고 발명을 이룬다는 것이다.

창의적 인물들의 노년기의 특징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의 시기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들의 신체와 능력이 점점 감퇴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계속이루면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년이기에

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와 완전함을 구하는 삶을 마주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나’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노년기의 삶에서는 특별한 발견과 성공적 삶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나머지 세상과 의미심장하게 연결되어있다고 믿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위한 노력을 가진다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창조적인 과정이 무엇인지, 창조적인 인물들의 성향과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앞서 설명하면서 저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창조적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떤 영역에 깊이 몰두하는 성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소질을 개발하지 않거나 기초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젊은이는 어떤 영역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다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창의적 인물들의 전반적인 정신활동에 기여하여 편협한 전문가가 되지 않도록 이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창의적인 업적은 사회와 문화에서 인정받아야 됴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발견과 창의적 사고를 인정해 줄 사회적 현장과의 상호작용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서의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창의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보다 호기심과 관심의 개발에 치중해야함을 언급한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유리하며 매일 무언가를 느끼고 놀라움을 발견하도록 하며 일상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을 연습하고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몰입은 자신의 일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도 연관성을 가지므로 창의적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또한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하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힘의 분배를 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너무나도 에너지를 소진하며 산만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너무나도 에너지를 축적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통한 집중력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하면서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적 성향을 바꾸는 것을 권장한다. 개인의 성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창의적 인간이 가지는 요소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확산적인 사고를 위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다방면으로의 접근을 통한 기발한 발산적 사고를 가지는 습관을 가지며 자신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영역을 선택하고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이끌도록 권하고 있다.

저서를 통해서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창의성이란 특정한 사람과 어떠한 특정 부류에만 속하는 특정한 재능이 아니며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 도래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 도래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현시대의 창조물들은 단순히 문제해결책으로 남는다고보다는 우리의 삶과 인류와 세계를 운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인류의 풍요함과 운택함을 주며 자신의 성공을 치하하기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창의적 인간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서 지

향하고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대한 접근과 방법론에 있어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도록 만드는 안내서 같은 책이다.

창의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며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접근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왜 창의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얻을 수 있는 저서이다.